

Market Index / 8일

코스피지수 ▼ 1807.14 -16.46

코스닥지수 ▲ 607.37 +0.47

유가(WTI, 달러) ▼ 23.63 -2.45

환율(원)

1USD 100¥

살때 1242.36 팔때 1141.51

살때 1199.64 팔때 1102.25

1EUR 1350.71 1CNY 181.18

살때 1350.71 팔때 1298.01

1EUR 1350.71 1CNY 181.18

제주 말산업 업체 70% “향후 전망 악화”

유통체계 구축·승마 대중화·기반시설 확충 요구 1만5000마리 사육... 업체당 수익은 7000만원꼴

제주지역 말산업 업체의 70%가량이 향후 전망에 대해 악화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말 보유 사업체수는 921곳(당나귀·노새 2개소 포함)이다. 전국 2156곳 가운데 42.7%를 점유하고 있다. 도내 업체에서의 사육두수는 1만 4997마리로, 전국의 2만7819마리의 53.9%에 이른다.

도내 용도별 보유 마는 경주용 4890마리, 번식용 4009마리, 승마용 3999마리, 육용 1178마리, 관상용 149마리, 교육용 48마리 기타 708마리 등이다. 품종별로는 더러브렛 4892마리, 제주마 3722마리, 제주산 교잡마 5509마리 등이다. 제주마는 24.8%를 차지했다.

도내 승마시설은 70곳이며 승마장 25곳을 비롯해 농어촌형 승마시설 30곳, 기타 15곳 등이다.

말산업 관련 종사자수는 경마분야 821명 등 3045명이다. 전국 1만6366명 가운데 18.6% 수준이다.

지난해 도내 말산업 조사 대상 757곳의 매출액은 738억1960만원이며, 비용은 685억5158만원이 쓰였다. 이에 따른 전체 수익은 52억6775만원으로 업체당 7000만원 정도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한 향후 1년 내 대한 ‘제감하는 경영 현황’에서 응답업체의 69.9%가 부정적 답변을 냈다. ‘많이 나빠질 것 같다’(48.1%, 전국평균 30.5%)와 ‘약간 나빠질 것 같다’(21.8%·23.2%)의 비중이 컸다. 이밖에 ‘비슷할 것 같다’(18.9%·27.3%)’, ‘많이 좋아질 것 같다’(1.3%·1.4%)’, ‘모름·무응답(5.9%·8.4%)’ 등으로 나왔다. 제주지역의 부정적 시각이 전국평균에 걸쭉 컸다.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게 바라는 도내 업체들의 입장은 말 유통체계 구축(30.6%·17.7%), 말 수요 확충 및 승마 대중화(13.7%·20.7%), 승마시설 복합단지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7.8%·11.7%), 현장전문인력 양성 및 보급(7.1%·9.1%), 말산업 관련 수출 시장 개척 및 지원(7.1%·4.7%), 말산업 육성재원 확보(6.1%·5.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허브동산 이벤트 도민 입장료 50% 할인

제주허브동산이 도민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허브동산을 방문하는 제주도민은 입장료의 50% 할인된 금액으로 입장할 수 있다.

허브동산은 4월을 맞아 30만 송이의 꽃잔디와 스노우렌드, 수선화 등 봄을 알리는 다양한 꽃이 만개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봄꽃을 즐겼으

면 하는 취지로 이번 이벤트를 실시한다. 가족 및 연인들이 즐길 수 있는 미니골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2006년 개관한 허브동산은 제주도내 허브 1종 식물원으로 200여종의 허브와 각양각색의 정원 등이 즐비하다. 또한 산책로, 허브숍, 보타니카 카페, 황금 족욕체험 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 및 가족 나들이 공간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제주도 야간 관광명소로도 유명하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또한 당일에는 한해 제일장이 가능하다. 백금탁기자



제주농협이 8일 NH농협은행 제주본부에서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도내 낙농농가에서 생산한 유제품에 대한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제주농협 제공

제주농가, 마늘 조기 정부수매 건의 농협조합장 “수확 전 4월중 계획 확정” 요청

제주농협과 마늘제주협의회(회장 이창철)는 올해산 마늘 수확시기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마늘 수급처리에 위기감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6일 농협 회의실에서 마늘제주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9개 농협 조합장의 만장일치로 마늘 수매비축 조기 실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지역 마늘 재배면적은 최근 5년간 계속 감소해 올해산은 1943ha, 3만t으로 평년 대비 9%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타 지역의 마늘 재배면적은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전국 2만5000ha, 31만 2000t으로 평년 대비 2%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특히 따뜻한 겨울 날씨로 작황이 좋아 전년 대비 생육이 좋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올해산 마늘의 수급 불안문제를 예상해 ‘채소가격 안정제’에 의한 선제적 수급대책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제주지역에서도 102ha, 1362t이 포전에서 생육 중인 상태로 폐기, 면적조절 처리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난해산 마늘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올해산에 대한 산지 포전거레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주농협은 올해는 제주마늘 수확 전인 4월중에 정부수매계획을 확정, 발표토록 건의했다. 백금탁기자

제주농협, 낙농가 돕기 유제품 소비촉진운동

고객 사은 이벤트 등 전개

제주농협이 도내 낙농가들을 돕기 위해 4월 한달간 ‘범제주농협 유제품 소비촉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사은행사는 코로나19로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우유와 유제품 납품 중단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비위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NH농협은행 제주본부는 8일 도내 영업점 17개 점포에서 일제히 제주산 유제품 소비촉진 고객사은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4월 한달간 임직원 구매 행사를 비롯해 유제품 소비촉진 고객 사은행사, 취약계층 유제품 나눔행사, 우유·치즈 레시피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는 이날 객장에서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 행사를 전개했다. 변대근 제주농협 지역본부장, 강승표 농협은행 영업본부장, 김태현 제주농협 노조위원장, 제주농협 양한경 상무, 고영진 유가공공장이 참가해 방문객들에게 치즈제품(300g 포장)과 레시피 홍보물을 배부하며 소비촉진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제주농협은 임직원 유제품 구매운동을 전개, 이날 기준 500여명이 동참했다. 또한 임직원들은 매일 참여하는 행복나눔기부 운동을 통해 치즈제품 구입 후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주간 재테크 핫 이슈 동학개미운동과 변화한 개인 투자자

“내수 회복시 순매수 성공 가능성 높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특징적인 수요 주체가 있는데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 특히 신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 참여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도 생겨나게 됐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우려의 시선을, 어떤 이들은 신규 자금 유입으로 인한 증시 체질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내고 있다.

그동안 한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그 특성상 일관된 흐름을 보이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과는 다르게 투자자 개인의 목적 보유기간 등이 모두 각기 다르

신시장을 위주로 가계 자산을 재편해왔다.

아파트의 경우 국내 가계 가처분소득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서 2019년 3분기 2.8배를 기록했으나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그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상승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정부 정책 역시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압박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급락은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참여를 이끌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증시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예상되는 향후 한국

하반기 소비 증가 경제 성장률 상승세 예상 신규 자금 유입 인한 증시 체질개선 기대도

기에 특정 자산을 한 방향으로 끌고가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증시가 급락하는 기간 동안 특히 최근 2주간 지수의 10%가 넘는 반등을 이끈 투자주체는 같은 기간 4조원을 순매수한 개인 투자자라는 점은 개인들의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를 단순히 받아주는 모습에서 공격적으로 시장에서 매수세를 늘리는 모습을 보여왔기에 기존 개인 자금이 국내 대표기업들 위주로 직접 투자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개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대규모 매수 통칭 ‘동학개미운동’은 지속된 저성장 속에서 2016년 이후 가계가 꾸준히 저금리 시대를 준비해온 가운데 가계가 은행에서 받는 이자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예금에서 실물 혹은 금융자산으로 자산을 재편하게 되는 과정으로 보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 가계에서 자산 비중의 대부분은 압도적으로 부동산이 차지해 왔다. 안정적인 부동

경제 성장률은 소비 침체로 인해 2020년에는 0.5%로 하향조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의 10%가 넘는 반등을 이끈 투자주체는 같은 기간 4조원을 순매수한 개인 투자자라는 점은 개인들의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를 단순히 받아주는 모습에서 공격적으로 시장에서 매수세를 늘리는 모습을 보여왔기에 기존 개인 자금이 국내 대표기업들 위주로 직접 투자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최근 우리보다 앞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었던 중국의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에서 향후 국내 경제 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이 이뤄진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동학개미운동’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현정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점

제주의 대표신문
ihalla.com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사

도내 언론사 최초 '매년' 품질인증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젊은 신문! 신선한 뉴스! 정확한 언론!

한라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정확하고 빠른 뉴스와 함께 정보화 시대를 이끌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독자와 도민의 더 큰 신뢰와 사랑 받기를 바랍니다.

한라일보 센터장협의회 회장 류범수 외 회원일동

(순서: 가나다순)
 구좌센터장 이상권 남원센터장 김원석 노형센터장 이상호 동문센터장 김창섭 동제주센터장 김병진 서귀남부센터장 박경택
 서귀포센터장 박경택 서제주센터장 정승훈 신서귀센터장 박상욱 신제주센터장 정승훈 아라센터장 강성훈 애월센터장 김명철
 외도센터장 류범수 용담센터장 문병후 조천센터장 전명화 표선센터장 오치영 한경센터장 이건영 화북센터장 전명화